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김지하 양심선언문과 나의 양심



조성두 서울대 항공공학과 74 학번, 노동자신문 편집국장,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신병정수도건설추진위 원회 자문위원, 한국조폐공사 감사(현)

흰 한복 저고리와 회색 한복 바지, 저고리의 심장 부위에는 직사각형의 광목에 새겨진 푸른색 수번 3307, 그리고 수번 위에는 긴급조치9호 위반자임을 알리는 노란색 정사각형의 작은 비닐 조각이. 얼굴은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운동도 부족한 속에서 콩밥의 영양 덕분에 통통한 우유빛, 그리고 검은 머리, 검은 고무신

이것이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70년대 중반의 자화상이다. 내 뇌리 속에는 내 인생 역정의 각 시기를 표상하는 여러 개의 자화상이 새겨져 있지만, 위에서 그린 70년대 자화상에 제일 애착이 간다. 나의 아내가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85년 결혼 무렵의 자화상보다 구속생활 속의 자화상에 더 마음이 끌린다. 그것은 이 자화상이 다른 자화상보다 더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가 고희는 생애를 통해 수십 편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한다. 각각의 자화상은 그림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모색이 이루어지는 변곡점 같은 시기에 산출된 것이라고 한다. 내가 70년대 중반의 내 자화상에 끌리는 것도 역시 그 시기가 나의 의식과 삶에 새로운 틀이 주어진 시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청량리 하숙집

역사의 필연은 힘이 세지만, 그것은 뱀의 허처럼 교활한 우연의 작용을 통해서만 자기를 관찰해 가는 것 같다. 역사 속에 사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 활발한 우연에 부지불식 간에 포섭되어 마침내 역사의 필연에 몸바쳐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내가 민주화운동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 역시 이러한 우연의 간계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내 인생의 행로를 바꿔놓은 계기는 74년 하숙집의 선택에서 부터다. 당시 학교(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가 공릉동에 위치한 관계로 청량리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찾아들 어간 하숙집에 정금채 선배가 먼저 하숙하고 있었다. 정 선배는 당시 서울대 상대 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정 선배는 이 신입생을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라는 데로 인도했다.

### 흥사단과 서울대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서울대아카데미에 입회했지만, 사실상 나는 서울대아카데미의 상부조직인 흥사단에도 입회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서울대아카데미와 흥사단의 많은 선배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이 있게 한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의 아내 홍영희도 흥사단아카데미(이화여대) 회원이었으니, 흥사단과의 만남은 나에게 정말 큰 것이었다.

흥사단은 주지하는 대로 1913년 미주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영 코리아인 아카데미(Yung Korean Academy) 라는 이름으로 만든 민족부흥운동 단체이다. 해방 후 침체를 면치 못하던 흥사단이 5.16 후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세울 젊은 인재들을 길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별인 사업이 바로 '아카데미 사업' 이다. 전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단위 아카데미를 두고 1963년 창립 이래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의 인재를 길러냈다. 이렇게 해서 배출된 인재들은 민주화의 강력한 후원군이자, 선진 한국의 기반이며, 각 방면의 인적 자원들이었다.

서울대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63년에 만들어진 대학생서울아카데미에서 66년에 분화하여 단위 아카데미로 창립했으며, 내가 입회하였을 시에는 1기에서부터 9기에

걸쳐 약 9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80년 5·17 구테타 뒤에는 지하화하여 이른바 언더서클로서 20기(85학번)까지 명맥을 이어갔고, 약 250명의 회원을 배출해 냈다. 서울대 아카데미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학생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서클 중의 하나였다. 그 동안 희생도 컸다.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9호 위반, 학림 사건 등 크고 작은 학생운동 사건에 서울대 아카데미 회원들은 깊게 관여하고 희생을 치렀다. 86년에는 83학번의 이재호 군이 전방입소 거부투쟁 중 분신 항거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차라리 내가 입회할 74년 당시에는 그래도 낭만 또는 여유 같은 것이 그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될 만큼 나 중의 후배들은 엄혹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 학습과 변

서울대 아카데미는 72년부터 학년별 세미나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후배들을 지도하였다. 이런 학습체계로 우리 9기를 지도한 선배는 이병천 선배(현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였다. 이때 함께한 우리 9기 친구들은 송영인(역사교육학과, 현 녹색병원 근무), 이선근(경제학과, 현 민노당 경제정책 책임자), 김천우(법학과, 현 국회 근무), 박노철(산업공학, 현 SK 텔레콤 상무), 박정희(간호학, 현 마산간호대 교수), 권희영(국사학, 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최원자(간호학, 현 서울대 병원 근무), 이정희(의학과, 현 근무처 미상), 그리고 나(항공공학과, 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이었다.

초기 교재는 이규호(전 연세대 교수)의 <앎과 삶>, 그라즈단제브(러시아 사학자)의 <한국 근대사론> 등이었다. 지금은 좋은 책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출판문화가 저급하여 이런 정도의 책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책들이었다. 이어서 최문환(전 서울대 교수)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그리고 한국근대사 관련 책들이 추천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나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다 준 책들은 역시 우리의 영원한 사표 이영희 선생(전 한양대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조용범 선생(전 고려대 교수)의 <후진국경제론>, 라이트 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이>와 같은 책들이었다. 이 책들은 논리 이전에 감성을 용솟음치게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관념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그리하여 새로운 의식을 머리 속에 자리잡게 하는 책들이었다. 당시 그 의식의 전환은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였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학습하는 한편, 시국을 논하며 분노하고 알게 모르게 민주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워갔다. 그리고 주변의 선배들은 그것을 실천과 희생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도왔다.

### 활동 의의 만남

75년 봄이였다. 당시는 김상진 열사(서울대 농대생)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항거해서 4월 11일 할복자살하고, 5월 13일 긴급조치9호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이 무렵 서울대 아카데미의 양길승 선배가 조직한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양 선배는 당시 긴급조치 1, 2호 위반으로 쫓기는 몸이었지만, 이 모임을 만들고 꾸려나갔다. 나를 포함하여 위의 송영인, 이정숙(이화여대 아카데미, 현 우리내과 원장), 김영인(이화여대 아카데미, 현 김영인 한의원 원장), 김태일(고려대 아카데미, 현 영남대 교수) 등 5인이 여기에 참여했다.

양 선배는 학습도 학습이지만 당시에 철저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기 활동이 정보조직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 차레나 이사를 다니는 면모를 보였고, 언어에 있어서도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넘는 형용사나 부사의 사용은 극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철저히 못한 자기 내면의 의식이나 태도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몸에 가학해서라도 철저를 기하려 하였다. 그는 내가 만난 첫번째 '활동가'였다. 지금 양 선배는 원진 레이온 산재 희생자의 보상 기금으로 만들어진 서울 녹색병원의 원장이다. 그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과건강연구회 등의 산파였다. 그는 녹색병원이 일개 병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무엇을 해야 하나'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에게 KBS는 '한국의 노먼 베썸 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양 선배를 우리가 만났을 당시 자기는 의사로서 나중에 농촌에 들어가 살면서 꼬문을 만들겠다고 말했던 점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이 결코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축원해 마지 않는다.

### 김지하 양심 선언문

75년 8월 말쯤이었을 것이다. 양 선배가 우리에게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이른바 김지하의 ‘양심선언문’이라는 문건이 양 선배의 수중에 들어왔고, 이를 제작 배포하자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문건은 놀랍게도 시인 김지하가 쓴 것이 아니었다. 유명한 인권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작고)가 김지하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당시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에서의 용공조작과 고문 실상을 폭로한 김지하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사형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조영래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 김지하를 살리기 위해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자기가 중앙정보부 조사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라고 강요돼 허위자백을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이런 허위자백으로 인해 자기와 교분이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양심선언문은 조영래 변호사의 또 다른 명문이었다. 그는 전태일 열사의 기록인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당시 시집 <황토> 등으로 문명을 날리던 김지하가 쓴 것으로 착각할 만큼 스스로 완벽한 김지하가 되어 명문을 썼다. 우리는 당시 이 양심선언문이 김지하가 감옥에서 써서 비밀리에 외부로 유출해 우리 수중에 들어온 것으로 믿었다. 이 문건은 비밀리에 국내에서 유통됐고, 해외로도 흘러나가 국제사회의 지식인들이 김지하의 구명운동에 참여토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조영래는 성공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당시 양심선언문의 제작 배포에 쉽게 동의하였고, 나는 동대문시장에 나가서 가리방과 등사기, 종이를 사가지고, 동대문구 동송동 소재 자취방에서 약 200부의 양심선언문을 제작했다. 그리고 이를 함께한 친구들과 나누고 각자 대학 내에서 이를 배포하는 일에 들어갔다. 나는 당시 서울공대 산사연의 가평(?)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해서 이종원 선배(금속공학과, 현재 일본에서 대학 교수) 등에게 이를 나눠주기도 했다. 물론 양심선언문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였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 구속

75년 9월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송인동 자취방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커먼 복장의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었다. 나는 차에 태워져 남산 중앙정보부 8국 건물(지금의 대한 적십자사 본사 건너편 건물)로 끌려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도 그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정보조직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기가 당시 중앙정보부 조직이란 무소불위의 조직이었고, 긴급 조치9호는 반정부 행위는 물론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희대의 철권 억압정책이었으니 이상스러울 것도 없었다.

양길승 선배는 별도로 체포됐고, 나머지 혐의자 다섯 명 모두 잡혀들어왔다. 약 3일 간의 매질과 협박을 거쳐 사건의 전모는 다 드러났다. 우리는 성북경찰서로 넘겨져 재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성북서에 가보니 우리 다섯 명만 잡혀 온 것이 아니었다. 고려대 아카데미의 하상주 선배(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 설성수(현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진(전 청석엔지니어링 상무), 조공희(전 동양투자금융 간부) 등이 잡혀와 있었다. 이들은 우리 다섯 명과는 다르게 훈방되었지만, 어쨌든 고통을 함께 한 선배요, 동지들이다. 이들이 지금도 그립다.

### 서대문구치소

구속의 시작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더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또 그동안의 모든 활동과도 완전 절연되게 됐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때로 찾아왔다. 하지만 오히려 고요한 정적 속에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었다.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 부모님과의 첫 면회 장면이다. 아버님(조신형, 당시 중학교 교사. 지금은 정년 퇴임)께서 아들 얼굴을 보고 할 말을 하지 못하실까봐 미리 종이에 할 말을 써가지고 오셔서 면회실 그 침침한 유리벽 너머로 울먹이며 그것을 읽으시는 것이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그 뒤로도 부모님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불효를 여러 차례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살면서 이 대목이 가장 어려웠다.

바깥으로부터 절연되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수감된 방은

서울구치소 5사하 9방으로 1.75평의 작은 방이었다. 이 방은 폭력범 방으로, 8~9명의 폭력 혐의범들이 늘 함께 갇혀 지내는 만원 상태였다. 여기서 만난 그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소한 일로(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존 수단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인한 폭력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다른 측면, 다른 인간군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할 즈음,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서울대 75년 4.3 데모와 5·22 사건 등으로 선배들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왔다. 유영표(현 민주공제회 준비위원장), 원혜영(현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박인배(현 민예총 기획실장), 박성규(현 도서출판 아침이슬 대표), 경희대 신현태 선배(현 한의사) 등을 만나게 됐다. 이들은 75년 봄 김삼진 열사의 죽음의 의미를 도저히 그냥 물어버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긴급조치9호의 폭압을 뚫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 영웅적 투쟁을 감행하였다. 그밖에 서강대 권오성 선배(현 수도교회 담임 목사), 나중에 환경운동으로 유명하게 된 최열 선배가 수감되어 있었고, 청우회 사건의 이부영 선생(전 열린우리당 의장), 성유보 선생(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정정봉 선생 등이 함께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과의 통방이나 소통은 그 자체로 격려가 되었고, 그때까지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던 민주화 세력의 다른 부분과의 통로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 출소 이후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고, 2심에서 1년으로 감형되었으나, 상고는 포기했다. 당시 재판은 주지하는 대로 검찰이나 법원이 정보기관의 주문대로 처리하는 게 상례였다. 1심과 2심에서 부당한 이유들을 주장할 만큼 했으니,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얼마 뒤 76년 10월 말 만기 출소하였다. 출소한 뒤 송영인과 김태일은 군에 입대하였고, 나는 병역이 면제되어 부모가 계신 대전에 내려가 몸을 추스렸다. 이정숙과 김영인은 먼저 출소(2심에서 집행유예)한 이후 고향 순천에 내려가 지내고 있었다. 출소 뒤의 정신적 상황은 차라리 구속 시기가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이었다. 우선 준비없이 당한 구속과 이에 따른 신분의 변동,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게 살아 나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정신적으로 편한 날이 없었다.

77년 봄, 서울에 올라왔을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우선 유신 말기의 어려운 상황을 헤치며 대학에서 들려오는 투쟁 소식들이었다. 77년 3월 같은 아카데미 동기인 74학번 김천우(법학과, 현 국회 근무)가 양춘승(경제학과, 현 지환테크 대표), 박찬우(역사학과, 전 YMCA 여수파견 간사)와 벌인 기습적 시위 사건, 77년 가을 서울대 26동 사회학과 심포지엄 사건으로 아카데미 후배인 박홍열(사회학과 75학번, 현 관악포럼 운영위원)이 구속된 것, 아카데미 75학번 후배들인 김철수(신문방송학과), 연성민(국사학과), 성욱(국문학과), 피정선(사회학과) 등이 78년 시위 사건으로 구속된 것 등이었다. 다른 한편 대학 밖에서는 선배들이 사찰당국의 눈을 피해 가며, 민주인사들을 찾아다니고 시국을 논하고 이런저런 모색을 하였다. 나는 가장 어린 후배의 한 사람으로 이들 모임의 말석에 참여하곤 했다. 당시 정문화(작고), 이신범(전 국회의원), 최민화(현 환경관리공단 감사), 김학민(현 학민사 대표), 이해찬(현 국무총리) 등과 어울려 시인 고은 선생 댁, 전 대통령 윤보선 댁, 소설가 이호철 선생 댁 등을 방문한 기억이 새롭다. 말하자면 재야 세력과 만나는 경험을 가졌던 것이다. 이들 모임은 78년 말에 이르러 민청협(사실상 80년대 민청련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음)으로 결집되게 된다.

### 다시 대학에

78년에 접어들어 내 개인적으로는 뼈아픈 일이 하나 발생했다. 6월 26일 동생 조성오(당시 서울대 법학과 2년, 현 변호사)가 광화문 시위에 나갔다가 붙잡혀 구속되고 학교에서 제적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효의 장남인 나로서는 동생이 그나마 부모를 위안해 드릴 수 있는 의지처였는데, 동생마저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집안에서 아들이 둘 다 구속되고 학교에서 제적된 사례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부모는 실로 큰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

이런 속에서 나는 대학을 다시 가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집안 상황을 방관만 할 수는 없었다. 물론 당시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대학을 다시 가는 따위의 나약한 생각을 하는 것은 고통스런 일이었다. 더욱이 당시는 노동현장으로의 지향이

운동권 내에서 모색되던 시기라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압체제 속에서 뿌리없이 방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서울근교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운동권 사람이 서울 내의 대학에 다시 진학 하고자 하는 경우 사찰당국이 이를 미리 알고 불합격시킨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선택했다. 예비고사부터 치루고, 본고사도 치렀다. 그런데 수석 합격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민망스런 일까지 발생했다. 덕분에 사찰당국은 나를 불합격시킬 수는 없었다.

다시 학생이 된 것이다. 학교에 다시 다니는 동안 홍사단 인하대아카데미를 지도했다. 미안한 심정을 보상하는 의미도 있었다.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최종식 선생의 <서양경제사론>를 수차례에 걸쳐 강독했던 기억이 난다. 인하대에서는 나중에 인천 운동권의 주역이 된 안영근(현 국회의원), 곽한왕(현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위원), 조용호(현 사업) 등을 만났다. 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김대환 선배(현 노동부장관) 등을 만났다. 하지만 대학에 다시 가서 새로운 비전으로 내 길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치는 않았다.

이런 속에서 79년 10. 26 박정희의 죽음, 유신체제의 종말을 맞았다. 여기서 나의 70년대도 마감됐다. 나는 80년도에 서울대로 복학하여 서울의 봄을 맞았다.

이상이 70년대에 내가 걸어온 길이요, 자화상이다. 그것들은 나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나의 역사' 이지만, 이미 나의 영역을 떠나 '우리의 역사'가 되버린 부분들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는 여러 대목에서 마음이 아프고, 회한이 다가왔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 분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많은 빛을 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크게 빛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고자 한다.

## \_ 포도소안에서 가진 제2의 인생



전북대 기계공학 74학번,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상임총무,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소장, 전주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인규 \_ 사단법인 전북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이사장(현)

우리 세대는 입학 때부터 살벌한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며 살았고, 암울한 70년대 중후반과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친 후에는 사회 각 부문의 현장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살아온 어찌보면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같은 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나에게 20대는 오직 학습과 조직과 운동과 도피와 구속 등을 반복하던 10년이어서, 젊은 피가 끓는 청춘들이 겪어야 할 감상적 추억이 없음에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는 1974년에 입학하자마자 교회 선배의 권유로 고등학교 시절 활동했던 서클의 대학조직인 기독교학생회(KSCF)에 가입하고 남들처럼 대학 1년생이 가지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곧 이어 신문에 빨간(실제로는 새까만 색이지만)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고 전국적 조사와 함께 검거 선풍이 불었다. 그 바람은 우리 서클의 허종현 선배(지금 은 전주의 성공회 신부)가 조사를 받고 전국 대학의 학생활동을 대거 위축시킬 만큼 위력이 대단하였다. 우리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학생활과 서클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서울을 오고가며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의 전모를 듣고 알게 되었고, 점차 학생운동의 중심